전주시,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총력

김승수 시장, 정부세종청사서 문체부 · 환경부 · 국토부 · 문화재청 등 방문
현안사업 필요성 · 당위성 피력… 부처별 예산 편성단계서 반영 적극 건의

정부부처별 예산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지역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26일 정부세종청사와 대전청사에서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문체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간부 등을 만나 부처별 예산 편성단계에서 전주시 핵심 현안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은 문체부를 찾아 ▲전주야구장 건립 ▲전주월드컵경기장 노후관람석 교체 ▲한국형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 ▲세계 종이의 중심 한지마을 조성 등의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수달 생태복합센터 건립사업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다가 · 태평지역 및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문화재청에는 ▲후백제 실감영상관 및 실감콘텐츠 조성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2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이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전주야구장 건립 등 전주시 핵심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시장은 올해 초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 국민의힘 전주시 동행의원 보좌진과 잇달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왔다.

시는 오는 31일 정부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처 예산편성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의 장벽이 더 높아졌지만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며 "시민 삶의 터전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 전북도와 끈끈하게 공조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착한농부 마일리지 제도' 시범 운영

전주시, 도시텃밭 · 주말농장 등서 생산 농산물
기부하면 마일리지 부여… 1만점 쌓이면 혜택 제공

전주시가 도시텃밭에서 농작물을 길러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농부를 '착한농부'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 곳곳의 도시텃밭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착한농부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착한농부 마일리지 제도는 도시텃밭이나 주말농장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전주시 복지사업인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회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한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착한농부'로 인증해 혜택을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마일리지는 오이, 고추, 가지, 토마토 등 과채류는 1kg당 500점, 상추, 깻잎 등 엽채류는 1kg당 1,000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1만점이 쌓이면 착한농부 인증서와 함께 텃밭게시용 팻말이 지원되고, 다음해 색장동 도시텃밭 무료이용권, 물조리개 · 꽃삽 등 농작업 꾸러미가 제공된다.

시는 시범운영 이후 참여 대상을 도시텃밭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공하는 혜택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원과 박물관 같은 시 운영시설 무료입장 등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이 생활 속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덕진구 장동의 '토닥토닥 케어팜'과 완산구 중화산동의 '꽃두렁공동체' 등 9개의 도시농업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놀자천하지대본(완산구 색장동) ▲도심속 화분관리 나비채(덕진구 만성동) ▲만수 주말농장(덕진구 호성동1가) ▲부평 주말농장(완산구 평화동3가) 등 도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운영 중에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페트병 재활용 환경관리원 티셔츠 제작

전주시 환경관리원들이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티셔츠를 입는다.

전주시는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재활용 투명페트병에서 추출된 원사를 활용한 환경관리원 티셔츠 757벌을 제작 · 착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가 환경과 사회, 윤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ESG 경영방식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분리 배출된 페트병을 수거해 옷으로 만듦으로써 친환경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친환경 옷은 여름용 반집업 티셔츠 219벌과 기능성 반팔티 438벌로, 약 2,200만 원 상당이다.

옷 제작에 필요한 원사의 경우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깨끗이 세척해 칩(chip) 형태로 만든 뒤 추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는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공주택 273개 단지에 1,068개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분리배출 마대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전주시 주부환경감시원 등 단체를 통한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는 자원관리도우미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코로나19 AZ 백신 2차 접종 돌입

보건의료인 · 환자 밀접접촉 부서 중 1차 접종 마친 2475명 대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보건의료인 및 환자 밀접접촉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에 들어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분 247 바이알이 병원에 입고됐으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친 2,475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원은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및 종사자 192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과 4월초에 각각 화이자 백신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대상자까지 모두 접종을 마무리할 경우 총 2,667명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된다.

조남천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192명이 이미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까지 완료되면 경우 2,700여명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백신접종이 마무리 된다"면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예방 안전수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전주시, 31일~6월 4일까지 134명

전주시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21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134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만 18~65세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만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제한된다.

근무시간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이며, 65세 미만 일반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이다. 임금은 시급 8,72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 · 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자료 관리 등 DB 구축사업 ▲시립도서관 자료실 활성화 등 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비 사업 등 총 53개 사업에 배치된다.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 가능한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8~30일 선발자에 개별 통보된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공공근로사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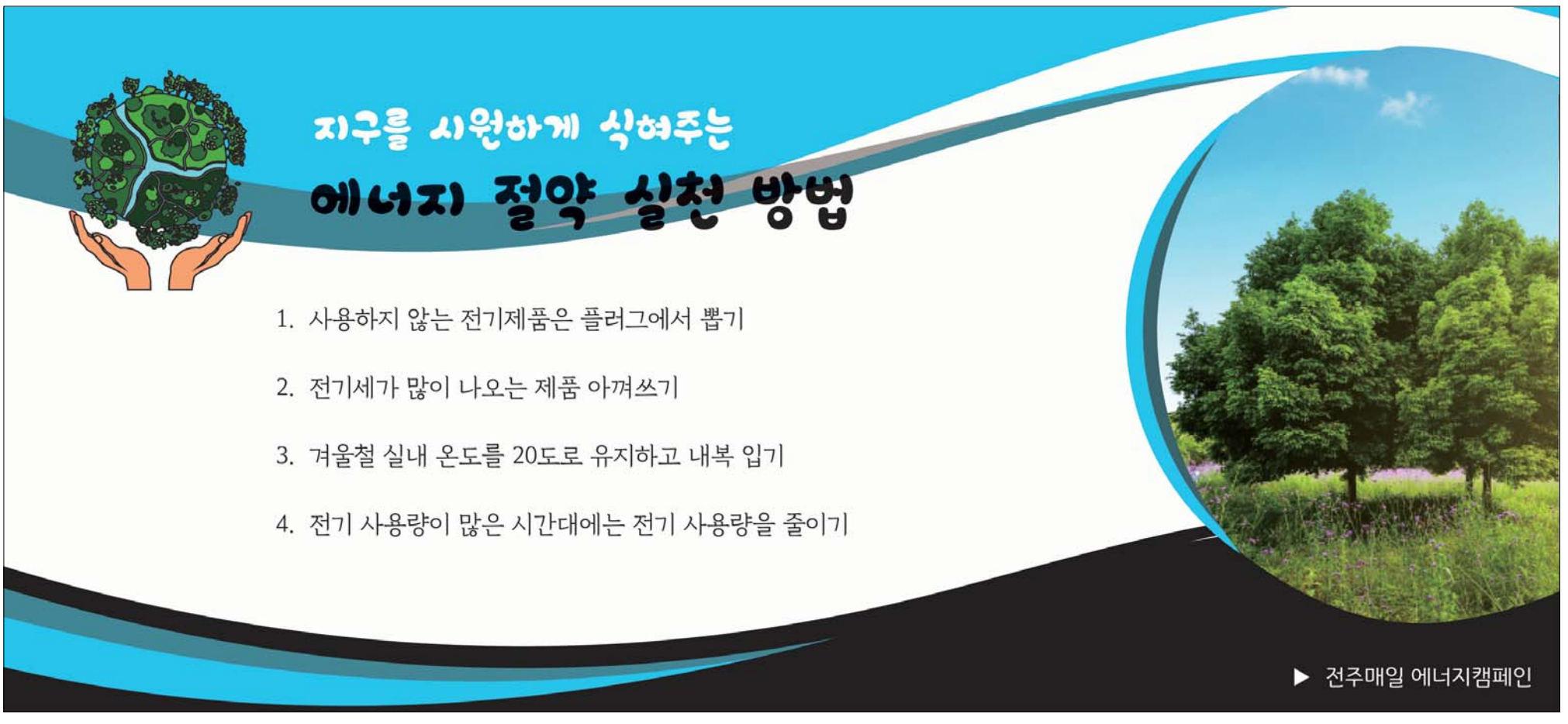
결혼이주여성 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역량 강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오는 7월 23일까지 등용문컴퓨터회계학원에서 결혼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ITQ(정보기술자격시험)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역량을 높여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총 45회에 걸쳐 전문 강사와 함께 ITQ 자격증 취득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된다.

교육에 참여한 사모온티 소우씨(태국)는 "취업 활동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 기쁘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꼭 취득해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센터장은 "이번 취업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